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06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06
2020년 09월 06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081968106](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081968106)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년 09월 06일

차례

1. [비대면시대의비대면해고]	3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
3. [대리기사노동조합비인가에관해]	4
4. [문재인정부의대학구조조정에관해]	4

1. [비대면시대의비대면해고]

한동대학교생활관청소노동자들이코로나-19 기간동안학교운영이어렵다는명분으로해고당한지 2 달이지났다. 출입카드를정지하고, 해고노동자들의사업장무단출입을금지했다. 흔해빠진수작이다. 하지만한동대학교의저열함은흔해빠지지않았다. “그동안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라는현수막을걸었다. 사실상현수막으로해고통보를대체했다. 참으로비대면시대에걸맞는비대면해고였다하겠다.

하지만생각해보면, 청소노동자들의노동은언제나비대면이었다. 청소노동자들은사람들이보지못하는곳에서, 보이지않는노동을계속해왔다. 너무나도비대면이어서, 자기가청소하는건물의건물주-사용자-와도, 하청업체라는유리막안에갇혀서만이야기할수있었다. 이토록이나비대면노동을하는노동자이다보니, 저런얼토당토않은비대면해고도가능한것이아닐까.

재난은평등하지않다. 그동안비인간적대우를받으며비대면노동을강제받아오던누군가이기에, 이제는재난이라는명목으로, 너무나도비인간적인방식으로, 비대면해고를경험하고있다.

그리고이제는, 해고당한노동자들이천막을치고, 소리를지르고, 구호를외치고, 집회를하고있다. “말할수라도있어속이라도후련”하다고한다. 비대면노동자들이얼굴을드러내고, 억울함을부르짖고있다. 우리는한동대학교청소노동자들의투쟁을지지하고응원한다. 한동대학교가재난의뒤에, 허울좋은범의뒤에 숨는것이아니라, 노동자들의억울함과대면하기를촉구한다.

[https:// m.pressian.com/ m/ pages/ articles/ 2020090110390453568#0DKW](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10390453568#0DKW)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2020년 9월 4일, 노동부는대법원의판단에의거하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에게법외노조통보처분하였던결정을취소하였다. 노동부가전교조에게법외노조통보처분을전달한지 7년만의일이다.

이는물론환영할만한일이며또한마땅히그러해야하는일일것이다. 하지만위와같은성과이전에중요한것은전교조가해고자들을끝까지포기하지않았다는점이다. 해고자는노동조합활동을할수없다는자본의논리에끝까지맞서싸워그들을지켜냈다는점에서전교조의이번투쟁, 그리고그승리는한국노동조합운동사에서도분명한의미를지닌다고평할수있을것이다.

다시한번전교조동지들의그간투쟁에감사와부채의마음, 그리고승리에대해 마음깊이축하와연대의뜻을전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대리기사노동조합비인가에관해]

'노동조합을만들권리' 예의거하여여러노동조합들은만들어지고무너진다. 여기, 대리운전기사들의노동조합이그예시중하나다. 이대리운전기사들의노동조합은끊임없는요구에도불구하고'인가'와여러장애물덕분에노동조합을만들지못하고있다.

이러한세태속에서한가지근본적대답을던져보자. 노동조합을만들권리? 그러한권리가있다는것은알겠다. 그렇다면그권리가있는노동자가노동조합을만드는데어째서정부가그것을인가해주는것인가? 인간이 스스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가, 인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그것에 개입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하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인민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정부와 기업은 인민들이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스스로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권리 행사를 막아야 할 대상은 바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과 권리를 가진 정부와 기업이니까 말이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09442488321#ODKW>

4. [문재인정부의대학구조조정에관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대학 구조 조정은 그 이름만 바뀐 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구조 조정 사업을 문재인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 명목으로 더 가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언제나 그랬듯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학습 및 교육 직당사자와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내 청소 노동자 등 관련 노동자들의 안위 또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교육하고 학습하고 노동하는 이들을 배제한 채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시도는 그들이 주장하듯 '필수적'도 '합리화'도 아니다. 이것은 학교를 기업으로 예속화시키려는 시도다. 이전 정권부터 진행된 구조 조정과 프라임 사업에서부터 보듯 정부는 학문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정체성을 간과한 채 취업률 지상주의적 시각으로 인문, 예체능계의 퇴보와 이

공계의 취업 학교화를 밀어붙이며 대학을 그저 기업을 위한 노동력 생산 공장으로만 들러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미비 및 정책적 차별로 인해 태생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현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방기한 채 그대로 평가에 반영시켜, 지방 대학을 고사시켜 서울 공화국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은 덤이다.

우리는 학령 인구 감소를 말하기 이전에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민주화를 말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도 여실히 1년 700만 원을 넘기는 대학 등록금과 사학 비리로 얼룩진 대학 환경이란 현실에서 학령 인구가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모든 민중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라. 정부가 대학 구조 조정이라 이름 붙인 자본에의 예속화에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58>